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 입이 내게 있으면(찬23/새23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조광중 집사 2부/주용중 집사 3부/장재혁 집사 4부/김진형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게 강 같은 평화(작곡 Joel Raney)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전도서 11:9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5:1-15
- 말씀 Message1, 2, 3부.....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애매한 현실 선명한 걸음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3) 넘겨 지다. 넘겨 주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영혼이 은총입어(찬495/새438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박성권 목사 / Rev. David S. Park

베델 쉼(休)방

Bethel's (Restoration) Visitation

2023년 대심방을 2월달에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 3년이란 기간을 팬데믹으로 보냈습니다. 영적인 팬데믹 역시 우리에게 심한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쓸리는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주었습니다. 교회도 묵묵히 많은 변화에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즉 번영과 쾌락의 우상숭배에 대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또 비로 임해서서 유일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승리 후에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의심과 두려움에 싸우다 지쳐 번 아웃 된 엘리야는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머물게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영육이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먹게 하셨습니다.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며 말씀에 서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심방입니다. 삶에 지쳐 우울한 성도에게 우리가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일어나게, 먹게,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말로 영과 마음과 육을 잘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가정에선 지친 아내에게 남편이, 또 지친 남편에게 아내가, 지친 자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또 지친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서로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쉼(休) 얻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 베델 가정을 방문하며 엘리야의 우울증에서 벗어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주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visitation season of 2023 began this past February. Looking back these three months of visitations, I realize we spent nearly three years from March 2020 to March 2022 in the pandemic. It was also a spiritual pandemic where we were swept away by storms of severe anxiety, fear, and dread all twisted in chains of stress. During all this, the church also had to mask up and silently accept all the changes. But God has something new for us.

There was a showdown between Elijah and the priests of Baal and Asherah (the idols of pleasure and prosperity) at Mount Carmel. There, The LORD God proved Himself as the One and Only Omnipotent God by pouring down fire and rain. After this victory, Elijah, who was burnt out from the fear and panic that Jezebel, the wife of King Ahab, sought to kill him, ran for his life and escaped to hide under a broom tree.

Elijah, with his barren heart, sat under that tree, wanting to die. Exhausted throughout his body, mind and spirit, Elijah lay down under that broom tree, and just slept. Even so, the Lord God sent an angel to tap him awake; to raise and encourage him and to feed him. There was a baked cake and the jar of water along with a pat on the back with an encouraging word to get back up. This was the broom tree visitation. So while visiting with the fellow believers of Bethel, worn out and heavy-hearted from life, I realize we are to be like the sent angels. Let us lift them up with hymns and songs. Let us help them to eat God's Word and be refreshed once again. Let us nurture their spirit and souls. Let us tend to their bodies and minds. Let us aid them to be revived for what is coming next.

In each family, may the husband be to his weary wife, may the wife be to the burnt out husband, may mother and father be to the worn out children, may the children be to their exhausted parents, the godsend angel. Let us become like the visiting angel to Elijah for each other.

Not by might nor by strength, but by my Divine, by my God, by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the Risen Son of the Living God, Jesus, we find our restoration. The Chinese character for rest means to be restored under a tree. I pray we all find rest in Jesus Who died on a tree.

Today, let us become as angels (though without wings) and visit the families of Bethel. May all the beloved believers of Bethel be freed from the depression of Elijah and rise up from the broom tree to the mountain of God. May we rise up to Mount Horeb, answering our Lord's call to the blessed people of Bethel Church.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갑신 목사

애매한 현실 선명한 걸음 전도서 11:9

1. "삶도 애매하지만, 신앙의 삶은 참으로 더 애매하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에 관해,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적용하기



2. '애매한 게 당연할 뿐 아니라, 심지어 복된 일이기도 하다'...는 주장과 그 근거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셨습니까? 공감하거나, 반박하고 싶거나, 추가로 보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지극히 애매하고 지독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의 엄연한 실제적 뿌리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떤 도전과 격려와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4. 나의 모든 남은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사는 법에 관한 '설교의 결론'에 대하여, 내가 느낀 느낌이나 깨달음, 혹은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예배

일본어 예배!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베델 일본어 예배'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2년 전, 소수의 일본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시작한 일본어 성경공부 모임은 그로부터 2년 뒤 2013년 4월 '베델 일본어 예배'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 열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연한 가지와 같이 작고 연약한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 위에서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의 빛을 양분 삼아 10년의 세월을 자라 온 것은 참으로 기적이지요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국 한국에선 요즘 한일 관계 문제로 온 나라가 소란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분열과 미움과 갈등은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의 울타리 안에 자리 잡은 일본어 예배의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상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식을 줄 모르는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원수 맺는 일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두 민족이 서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서로 가깝게 지내기에는 너무 복잡한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쳤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베델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민족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참 교회 됨과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서 베델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델 일본어 예배를 위해 사랑과 돌봄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목사님과 리더십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고 10년의 시간을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손용주 목사



상조 사역팀



1. 상조 사역팀의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분향이 있습니다. 상조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자리인 죽음을 통하여 겸손히 주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베델교회 상조 사역팀은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

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상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유가족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 가운데 굳건히 다시 서는 것을 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상조 사역팀은 공동체 담당 목사들과 상조 사역팀 담당 목회자이신 한순고 전도사의 인도 아래 팀장과 장로, 권사, 집사들로 구성된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있으며 장례예배 지원(접수, 안내, 사진/동영상 촬영, 조화 등) 유가족 위로 심방 등 모든 유가족을 지원하는 일에 교회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베델교회에 등록된 교인 또는 직계가족인 환자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하게 먼저 의사와 교회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서 사망진

단 및 장례 절차를 의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행정실에 비치된 장례 절차 안내서를 참조하시거나 공동체 담당 목사와 상조 사역 담당 한순고 전도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성도들에게 사역에 동참을 권면하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하나님의 위로 사역인 상조 사역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장례 절차에 관한 문의나 상조 사역에 함께 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상조 사역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 이상노 집사 (714)905-6188
한순고 전도사 (714)612-4075

예배채플 - 청1 목장 수양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솔직히 이번 수양회는 별다른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찼던 예전과는 달리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나아온 나는 영락없는 실패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수양회 주제가 'LOSER'였는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음에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실패하고 주저앉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차 없이 포기해 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말보다 위로가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벽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와 같은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고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내 the best one이 아니라 the only one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대 없이 참여한 이 수양회에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민해 자매

이번 수양회는 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

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 보았느냐는 전도사님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낼 때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 따갑고 불편했지만, 나에게 분명 그 불편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집회 시간에는 나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약하다약한 존재임이 깨달아지며 '내가 무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인데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구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최예인 자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 나의 죄인 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첫 집회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쁘게 평가해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삿 지체들의 찬양과 예배는 진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체들이 예배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으며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내가 의문을 품고 고민해 오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가사가 마음에 꽂혔고 이어지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내게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때까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며 큰 사랑 받게 해주니 유가 뭐지 아니? 그 사랑 세상에 흠뻑내라고,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 살리라고 부여준 거야. 근데 너는 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 이러한 마음과 함께 또 한

번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나의 죄 된 모습을, 나의 바닥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주원 형제



영어 중등부 (BYM Jr. High)

매일 저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BYM 영어 중등부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줌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는 QT-night 모임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멕시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하루에 한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전도사님께서 권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발적으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매일 저녁 QT-night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정말 많은 학생이 친구 사이의 관계, 서로를 아끼고 생

각하는 마음, 외로움 등 귀한 속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매주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나는 모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저의 계획과 기준에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우리 모임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일 하심에 도구로 쓰임 받음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QT-night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됩니다.

Hello! My name is Micah We, and I am a sophomore in high school. Through an app called zoom, we have a time of bible study Monday-Thursday God along with worship and prayer. After a mission trip from Mexico, a pastor by the name of P. Jinah had encouraged us to spend at least 1 hour a day to focus on God as we had worshiped and given hours upon hours to God through mis-

sions, she had wanted us to also do this at our homes. Long story short, these meetings were open from friends to the jr high ministry. One of these nights with the jr high ministry had a time of sharing each other's struggles and prayer requests and many of the precious students had so much on their heart to share. Many of the students shared about battling acceptance with friends, lovingness towards peers, and loneliness, yet they all had the conclusion of, but let God's plan happen, and I will wait on Him. This encouraged and continues to encourage me to live and wait on what the Lord has in store, instead of going on my own plans and standards. I am blessed to be a vessel for the Holy Spirit to lead these meetings in such an intimate and personal way. I cannot wait what else the Lord has to offer for these future meetings!

Micah We(10학년)

내 신앙의 자서전

매일 올바른 선택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선택했기에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감정과 환경에 의해 흔들려짐을 보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적용해 가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세워져 감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믿음이 아무리 굳건했어도 새는 바가지 같아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제의 믿음이 곧 추락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절대적 진리임을 알면서도, 때때로 내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려 결단했을 때 참 기쁨

과 평안이 있었고 결과는 항상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감정적으로 뜨겁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주안에서 좋은 만남과 좋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닮아가려 했고, 제자반, 사역반, 전도폭발 등 말씀 훈련을 통해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 훈련 중 암송한 성경 구절은 내 삶의 곳곳에서 해답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며 나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QT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일상생활에서 세상 가치에 지지 않고 승리함을 깨닫습니다.

어제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에 힘쓰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정진을 지속해 나갈 나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매일 매 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정화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삼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예삼채플 15주년 기념 예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학 2:9)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베델교회 청년부 예삼 채플이 설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였고, 또 장년 성도님들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코비드의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들의 불성 광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교회 청년들을 자기 자녀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는 장년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인해 저희 예삼 채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면 과거가 빛나면 빛날수록 더 가슴 아플 것입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한 노인들이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며 대성통곡하였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인 줄 믿습니다. 베델 교회는 예삼 청년들로 인해 앞으로가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삼 청년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예삼에, 그리고 베델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삼 청년들의 최고의 자랑이자 복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장년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귀한 믿음의 길, 옛적 그 선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잘 뒤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삼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 ▶ 일시: 4월 30일 오후 2시(주일 4부예배)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5/7: ①부-김병찬	②부-강현석	③부-김언조	④부-서윤지
	5/14: ①부-여홍평	②부-김세진	③부-김수열	④부-윤제니퍼
	5/21: ①부-김명수	②부-김양환	③부-김재훈	④부-이병천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월) | 5/6: 고스티브 5/13: 김건중 5/20: 김기주 5/27: 강영재

강단꽃(4,5월) | 4/30: 노성애, 이은지 5/7: 광연자, 김성희, 김인규, 황은아 5/14: 박관규, 박세환, 성상균, 이서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진선(내분비내과), 간호사-김 명 다음주 | 의사-한우광(한외과), 간호사-김선미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1-3부 예배에는 한국 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이신 정갑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이충경 목사의 '믿음과 의심 사이' 시리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셀목자 정기모임

돌아오는 토요일(5월 6일) 험시바 기도회 후 오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서로 하나되어 감당해 나가는 동역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튀르키예 지진 현장방문 모집

국제적인 긴급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 1차 5월 22일(월)-5월 31일(수), 2차 8월 7일(월)-8월 16일(수)
3차 9월 11일(월)-9월 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지역과 사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안내: 본당앞 코트야드 & 교회 홈페이지
주최: SWM 실크웨이브/프로젝트 명칭 CES
문의: 이석희 장로(949) 697-7606

◆ 우간다 단기선교팀 모집

건물 페인팅, 어린이 VBS, 의료, 사진, 장애우 섬김 등 다양한 사역에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 6월 12일(월)-21일(수)
신청/문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2부, 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회학교 VBS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2023 VBS를 위한 교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VBS 진행을 위하여 중고등부 TA를 포함하여 어른 교사 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수 있으신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사지원 링크는 각부서 전도사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문의: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213)407-5239
[K-1]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예살채플 15주년

베델교회 청년부 예살채플이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베델의 미래인 예살채플 청년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 양로병원팀 재능 기부자 모집

매일 격주로(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인근 지역 양로병원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어르신 분을 섬기는 양로병원팀에서 주신 달란트로 같이 할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찬양, 악기 연주, 공연 등
문의: 이해원 집사 (714)788-3833

◆ BGC(영어권 교회) 일본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

베델의 영어권 교회, Bethel Grace Church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보바를 판매하오니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담임 목사 신간 출판 감사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지혜요, 내일을 내다보는 로드맵이며, 성도의 삶을 그리는 블루프린트입니다. 김한요 목사의 신간 '잊혀진 지혜 『인생의 블루프린트 십계명』'의 출판을 감사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주 후에 교회에서 현장 판매될 예정입니다.

◆ 기도해 주세요

K국 단기선교가 4월 30일(주일)-5월 9일(화)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시 파송 기도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최은주 성도님(박건영 집사의 모친, 최희정 집사의 시모)께서 4월 25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Uncertain Reality, Certain Walk

Ecclesiastes 11:9

1. Share your experiences where you felt, "Life is uncertain, but the life of being faithful is much more uncertain."
2. How do you feel about the claim "Not only that uncertainty is natural but it's also a blessing?" Share if there is anything you are connected to, disagree with, or like to add.
3. We have the history of the "early church," which was able to experience continuous expansion and revival based only on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This definitely works as a practical foundation even in extremely uncertain and unfavorable circumstances. How are you challenged or encouraged by this truth?
4. Share any feelings, realizations, or stories you want to add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e sermon" on how to live today which is the youngest day of all your remaining days.

Apply to Life

